

이 단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 읽을 말씀 마 5:17-2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와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20절이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3인칭으로 시작하셔서(마 5:3) 그 다음은 2인칭으로 말씀 하시다가(마 5:13), 5장 18절에서 위엄 있게 1인칭으로 바꾸시며 처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문구를 사용하십니다.

마 5: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구절은 원인접속사 가르(‘왜냐하면’)로 시작합니다. 그 전절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라는 말씀의 이유를 제시해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중 가장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은 천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자의 가장 작은 부분인 ‘점(이오타)’ 과 가장 작은 선인 ‘획(요드)’ 을 예로 들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것은 17절에 나오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다 이루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다 이루리라” 가 단지 17절에 언급된 “선지자” 의 예언 성취를 뜻하고, 17절에서 말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21-48절에 나오는 도덕법의 의미

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의 관심이 17절의 성경 전체로부터('율법과 선지자') 18절에서 율법으로 좁혀지고 있고('율법의 일점일획'), 그 초점이 그 뒤 구절들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참조 19, 21-48). 그리고 선지자뿐 아니라 율법에도 예언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마 11:13). 그러므로 “다 이루리라” 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율법이 의식법을 통해 그림자로 예언한 것의 성취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보여주듯이, 십자가는 율법의 예언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율법을 완전케 하지 않고 몸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음! 이것이 18절의 “다 이루리라” 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것보다도 잘 조화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이를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것들이 “다 이루리라” 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양용의 교수님은 「예수님과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서 “마태복음의 구조는 마태가 예수님의 시대를 그의 탄생으로부터 그의(부활까지가 아니라)재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준다...우리는 '판타'("다")의 지시 대상을 단순히 그 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에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7-18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 대해 스캇 맥나이트도 산상수훈 주석에서 “나는 마태복음 5:17-20절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원래에 가까운 형태로 복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 바로 그분 안에서 성취된다고 숨김없이 대담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믿으라고 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주어진 성령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

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갈 3:13-14, 롬 8:1-4). 본문 18절은 율법 중에서도 의식법이 예고한 것을 예수님이 모두 성취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은 물론 재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식법의 성취가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이 단락은 단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함뿐 아니라 새로운 의무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 결과 새 생명으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롬 6:3-4). 즉 복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롬 8:4). 그러므로 로마서 2장 6-11절의 행위심판에 대한 말씀이 복음의 일부이듯 “너희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도 지켜야 하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낮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9-20)는 말씀 역시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롬 6:17-18)”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단지 그때 의롭다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훈의 본에 우리가 넘겨졌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점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래 놓이게 된 “교훈의 본”에 대해 더글라스 무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모세의 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위 있는 교훈의 코드에 매여 있음을 암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처럼 ‘권위 있는 교훈의 코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19-20).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편, 많은 이들은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재림 때 휴거된 성도들뿐 아니라 천년왕국의 백성들 중에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은 모든 이들이 몸의 구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마태복음 5장 18절과 유사한 구절인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후에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내 말)안에는 율법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고(요 5:39),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이 완성된 형태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 단락 바로 뒤에 나오는 21-48절에서 주님은 율법의 도덕법을 완전케 하셨으므로 도덕법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율법도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폐해지지 않을 율법인 예수님이 완성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 안에 가득한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마태복음 5장 17-20절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며 성령을 좇아 율법을 이룰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믿어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지 살펴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육신과 싸워 승리하고 열매 맺은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